

# 한화, 중국 GMT · EPP 생산시설 증설

현대 · 기아 현지법인에 자동차부품 공급 ... 1-2년 안에 시장다툼 치열

한화종합화학이 중국 베이징(北京)에 GMT 및 EPP 생산공장을 준공했다고 발표했다.

한화종합화학은 5월20일 베이징 창평 과학기술단지에 현지법인인 <한화중화(북경)소료유한공사(韓華綜化北京塑料有限公司)> 공장을 완공하고 추두런 대표이사과 제갈 걸 베이징현대모비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.

1000만달러(약 120억원)를 투자해 완공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신소재인 GMT(Glass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s)로 만든 범퍼빔과 EPP(Expanded Polypropylene) 소재의 범퍼코어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지법인인 <베이징현대기차>와 기아자동차 현지법인인 <둥펑위예다기아기차> 등으로 공급한다.

한화종합화학 베이징 공장은 현재 1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에 발맞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및 공정품질을 개선해 2004년 10월 자동차부품 생산품질 인증인 <TS 16949>를 획득할 계획이다.

한화종합화학 추두런 대표이사는 “베이징공장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일간 화학저널 관련기사 2004년 02월03일 “한화종합화학 GMT 중국시장 개척”

<화학저널 2004/05/21>